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2호 [무게 제25285호] 주제105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경 동지, 조용원 동지, 국방위원회 실체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자연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 새기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는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연건축면적이 3만 5,000여㎡에 달하는 자연박물관건설이 드디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병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동물원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판전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방대하고 아름다운 공사에서 만리마속도물 창조하기 위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중앙동물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멋들어지게 진변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참말 멋있다고, 백두산호랑이를 철삼한 덩치큰 분관으로 틀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희열과 광만에 휩싸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의도가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2 번 으 로 계 속

자연박물관은 우주관, 고생대관, 중생대관, 신생대관, 동물관, 식물관, 선물관,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배치된 전시호동과 사무실, 회의실들이 있는 판리호동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보급기지인 자연박물관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연박물관을 훌륭히 건설한 해당 부문과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자연박물관의 모든 전시관들을 알구렷다고 하시면서 우주의 진화과정에 형성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지식을 생명의 기원과 결부하여 보여주는 우주관이 특색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생물계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판들에 각종 표본들과 학술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였는데 참관자

들에게 자연에 대한 올바른 리해와 폭넓은 지식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동물관, 식물관에도 각이한 동식물 표본들과 박제품 등을 분류별로 체계화하여 생동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연박물관이 앞으로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물론 과학연구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성, 실용성, 진질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자연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총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조치들에 조속히 호응해나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태양민족사의 특대사건으로, 세계인류 정치사에 유례없는 대정치적 대역전으로 확대된 제7차대회에서는 우리의 전체위협에서 본질과 대결로 인한 거대한 비극적고통을 가시게 하고자 하오니...

전정언민 호소를 깊이 음미해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거부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은 거세를 실망케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군사대화회담에만 대해 《언정정정은 선진공세》, 《평화위협전술》로 대도하면서 무작정 전면무정, 전면지부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선 비핵화, 후 대화》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엄정한 대응》을 떠들어대기까지 하였다.

주장도 민족의 운명우에 올려놓을수 없다. 적대와 편견에 앞서 우리 민족의 삶 의 리전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우선시할 때이다. 불세출의 전세위인의 송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북남관계에 조성된 현 과국상태를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1.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사이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만적행위를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결론을 함께 열어나가는 우리의 제안에 지체없이 화답해나와야 할것이다.

이 땅에 배회하고있는 전쟁위험을 제거 하고 긴장상태를 해소하는것은 천두황제 군단국의 책무이다. 총부리를 내대고는 평화를 성취할수 없으며 비방중상과 적대감으로는 안전을 보장할수 없는 법이다.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침묵한 제난만을 당하게 될것이다. 불미스러운 파기와 단호히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총돌위험을 해소하고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큰연명을 내걸어야 한다. 슬기로운 단일민족인 우리가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배린 일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70돋기념 중앙보고회가 20일 보령강계수공사기념당앞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로 우리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보령강계수공사를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35(1946)년 5월 21일 착공식장에 나오시며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불소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많은 일대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직명도하시었다 그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술을 슬기롭게 이끄시는 존엄한 속에서도 대자연개조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불소 대자연개조사업에 열정을 바치시였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언급하였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70돋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70돋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금수강산으로 꾸미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실혈을 다 바쳐오신 경제위원들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강사의 대불이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무동으로 행복의 학원으로 전면시 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은 대자연개조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불소 대자연개조사업에 열정을 바치시였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언급하였다.

경상사건은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본보기로 훌륭히 꾸리며 도초체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자랑의 특성을 맞게 건설시켜줄 때 우리 인민들에게 만년대제의 새부름 마련해주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정의와 영원불망한 영광을 드려오셨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70돋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총걸기, 총매진하자
시, 군, 군중대회 진행

【평양 5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군중대회 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지방당, 정전,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경원, 삼천, 안악, 은골, 강령 등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는 사회주의 중국의 위대한 전진전망의 비결을 쫓는 불멸의 대강이며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적 전진으로 이끄시였다고 말하였다.

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걸기해나갈 열의에 넘친 목소리는 최천시, 북성, 인선, 숙천, 풍천, 박천, 우시군 군중대회장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공적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진전, 연속공적해나감으로써 만리마산의 새로운 비약적 성과를 창조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말라보도착

【말라보 5월 1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적도기내공화국 대 총명위원회에 참가하고 이 나라를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19일 수도 말라보에 도착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메룬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말라보 5월 1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적도기내공화국 대 총명위원회에 참가하고 이 나라를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19일 수도 말라보에 도착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메룬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가메룬 공화국 대통령 별야각하 나는 가메룬공화국 44년을 맞으며 각하와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력관계가 계속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각하가 견고하고 행복할것과 귀국인민에게 만영이 있을것을 축원한다.





